

인문사회의학(의료인문학)의 범주와 교육과정 - 한의학 교육 중심으로 -

박해모¹⁾ · 선승호²⁾*

¹⁾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²⁾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교수,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The category and education curriculum of Medical humanities - focus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

Haemo Park¹⁾, Seung Ho Sun²⁾*

¹⁾ Dept.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²⁾ Dept. of Korean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Evaluation

Abstract

Objective : The definitions and categories of subjects related to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are still controversial, and we tried to find the areas lacking compared to the standards of medical education

Method :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related subjects of the World Medical Education Standards, ASK2019, and KAS2021 were reviewed, and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ubjects of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ere searched. We compared subjects with the medical school learning outcome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job competency. In order to increase validity, two authors independently classified them. In case of different opinions, we revised after sufficient discussion

Results :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related subjects in the Korean Medicine curriculum appear to be sufficient when compared with WFME and ASK2019.

The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related subjects of Korean Medicine schools were not distributed evenly throughout.

The areas to be supplemented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were 'a diverse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prevention and response to patient safety incidents',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ealth-related organizations and groups', 'social responsibility and reflective practice' and 'communication between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s'.

Conclusion :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related subjects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are sufficient, but they are not evenly distributed, and the areas listed above need to be reinforced.

Key words : Korean Medicine education, Basic medical education, KAS2021,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Accreditation Standards

• 접수 : 2021년 8월 19일 • 수정접수 : 2021년 8월 25일 • 채택 : 2021년 8월 26일

*교신저자 : 선승호,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한방내과

전화 : +82-33-741-9208, 팩스 : +82-33-732-2124, 전자우편 : sunguy2001@hanmail.net

I. 서론

근대 의료의 문제 중에 하나로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가치관이나 의견이 무시되거나, ‘의료의 비인간화’, ‘환자의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 교육에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는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¹⁾.

최근 한국 의대 교육에서도 의료윤리, 행동과학, 의사학 등의 소위 인문사회과학분야의 교육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²⁾ 한의대교육에도 이러한 추세의 반영으로 인문사회의학 관련 과목이 강조되고 있다. 한의학교육에서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한 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³⁾에서 의료인문학 관련 과목을 운영하도록 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차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KAS2021)⁴⁾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져 한의대 교육과정에 인문사회 의학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대교육에서 인문사회 의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전 등⁵⁾은 국내 의과대학의 인문사회 의학 교육현황을 조사하였고, 맹²⁾은 인문사회 의학 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안 등⁶⁾은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에서 제시한 인문사회 의학 교육목표 6개 영역에 따라 의대 인문사회 의학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⁷⁾는 의대 인문사회 의학 교과목 통합교육과정을 미국 의대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으며, 전⁸⁾은 의대 교육과정에 인문사회 의학 교육이 도입되는 경우를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의대 교육에서 인문사회 의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등⁹⁾은 한의학 교육과정의 인문사회 의학 교육필요성에 대한 한의사의 태도에 대해 연구하였고, 천 등¹⁰⁾은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인문사회 의학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 의학의 용어나 교과목이 다소 혼란스럽고, 한의학 전공이나 교양의 성격이 강한 교과목은 인문사회 의학 교과목에서 제외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수시기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 선행연구 외에 한의과대학 교육에서 인문사회 의학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학교육협회, 한국 의대의 인증기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의학의 범

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내용 및 교과목 등을 고찰하고 한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인문사회 의학 교육과정을 의과대학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와 비교하여 한의과대학에서 부족한 교육과정의 개선점을 찾으려 하였다.

II. 연구방법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1. 기초의학, 기초한의학, 임상의학, 임상한의학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의료인문학 또는 인문사회 의학 등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알기 위해 세계의학교육협회(이하 WFME)의 2015년 기준¹¹⁾, 2020년 기준¹²⁾,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ASK2019)¹³⁾,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2주기³⁾ 및 KAS2021 인증기준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 또는 인문사회 의학 교육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한의과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과정과 각 대학의 교육과정편람을 조사 정리하고, 각 대학별 및 학년별로 교육과정 과목을 정리 분석하였다.
3. 기초의학교육에 관한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는 국내 의대의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사람과 사회중심(이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¹⁴⁾가 출판되어 있으며, 해외에는 아직 명문화된 내용은 없다.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는 사람과 질병, 성찰과 자기계발, 환자안전, 소통과 협력, 의사와 윤리, 의사와 법, 의사와 사회, 전문직업성의 8개 영역으로 분류되고, 각 영역 당 2~7개의 수업성과가 포함되어 있다. 기초 및 임상 의학 과목을 제외하고 의사가 갖추어야 할 학습목표로 제시된 의대교육의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는 한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 과목과 국내의대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를 비교하였다.
4. 한의과대학의 인문사회 의학 교육과정을 한의사의 직무 및 역량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한의사의 직무 및 역량은 1차 진료 가능한 한의사 배출을 위해 한의과대학에서 배워야 할 역량에 대

해 작성된 문서로 2017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한의사 직무 및 역량¹⁵⁾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를 한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과 비교하였다.

각 교과목을 해당 수업성과 또는 해당 영역에 분류하는 작업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1차로 저자 2명(HMP, SHS)이 미리 정한 서식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하였고,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는 토론을 통해 수정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그 이후 관련 전문가등의 자문 등을 통해 분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정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의 교과목 및 교육내용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기준(WFME 2015, WFME 2020)^{11,12)}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ASK-2019)¹³⁾,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KAS2021)⁴⁾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문사회의학 관련 교과목 및 교육내용을 정리하였다(Table 1).

Table 1. Subjects corresponding to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tandards	Descriptions	Subjects
WFME 2015 ¹¹⁾	Behavioural and social sciences, medical ethics and jurispru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havioural and social sciences : biostatistics, community medicine, epidemiology, global health, hygiene, medical anthropology, medical psychology, medical sociology, public health and social medicine, Medical ethics Medical jurisprudence
ASK 2019 ¹³⁾	의료인문학 의료인문학, 행동과학, 사회과학, 의료윤리, 의료법규 등의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동과학과 사회과학 : 공중보건의학, 사회의학, 생물통계학, 국제보건의료, 사회역학, 의료사회학, 의료심리학, 의료인류학, 위생학, 지역사회의학 의료윤리 의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가치관, 권리, 책임과 같은 의료행위에서의 도덕적 문제 의료법규 약학기술과 의료기술(기기, 장비 등)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의료 전문직과 의료행위에 대한 법규와 기타 규정 행동과학, 사회과학, 의료윤리, 의료법규는 건강문제의 원인, 분포, 결과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문화적 결정요인, 국가 보건의료체계와 환자의 권리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개념, 방법, 술기와 태도를 포함하며 이로써 지역사회와 사회의 건강 요구를 분석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임상 의사결정, 윤리적 진료가 가능하게 한다.
KAS 2021 ⁴⁾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에 인문사회의학 내용을 명시, 도입, 운영	의료윤리, 의료법규, 의학통계학, 의료정보, 행동과학, 예방의학, 역학, 공중보건, 위생, 지역사회의학, 국제보건, 의료관리, 의료교육학, 사회의학, 의료사회학, 의료인류학, 법의학, 의료심리학, 의과학, 철학, 예술, 어문학, 경영학, 보완대체의학
WFME 2020 ¹²⁾	Behavioural and social sciences	In addition to WFME 2015 Health systems science which includes population health and local healthcare delivery systems Humanities and arts(literature, drama, philosophy, history, art, and spiritual disciplines)

2015년 WFME의 기준에는 인문사회의학(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또는 의료인문학(medical humanities)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행동과학 및 사회과학, 의료윤리 및 의료법규(medical ethics and jurisprudence)의 항목에 생명통계학(biostatistics), 지역사회의학(community medicine), 역학(epidemiology), 국제보건(global health), 의료윤리(medical ethics), 의료법(medical jurisprudence) 등의 교과목을 하위 예시로 들고 있으며, 2020년 WFME의 기준에는 위의 내용 이외에 의료시스템(health systems)과 의료전달체계(health delivery systems)에 대한 교육내용과 인문학 및 예술(humanities and arts)관련 교육이 추가되었다.

ASK2019에는 의료인문학, 행동과학, 사회과학, 의료윤리, 의료법규의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 예시로 아래 표(Table 1)에 열거된 교과목을 비롯하여 건강문제와 관련된 사회, 경제, 인구, 문화에 대한 내용과 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의학, 의사소통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AS2021에는 대체로 WFME의 기준과 ASK2019의 내용과 유사한 과목을 예시로 포함하고 있으며, WFME 2020에 제시되어 있는 철학(philosophy), 역사(history), 어문학(literature)와 같은 내용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2.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의 각 대학별 학년별 교육과정

한 의과 대학의 6년 교육과정에서 기초의학, 기초한 의학, 임상한 의학 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을 각 대학별, 학년별로 조사 정리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12개 대학중 7개 대학이 학년별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었고, 1개 학년에 배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2개 대학, 2개 학년에 배정되지 않은 대학이 1개, 3개 학년에 배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2개 대학이었다.

그리고, 언어, 사회학, 인성, 윤리, 의철학, 통계학 등은 주로 예과 1~2학년에 배치되어 있으며, 교양과목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대학은 본과 학년에 예방의학, 보건법규, 법의학, 병원 경영학 등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부산대의 경우는 현대사회와 한의학이라는 과정으로 인문사회의학의 교육내용을 과정을 학년별로 강의하고 있었다.

3. 의대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와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비교

기초의학교육에 관한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는 국내 의대의 ‘기초의학교육 학습성과-사람과 사회중심(이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¹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해외에는 이런 출간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의대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는 사람과 질병, 성찰과 자기계발, 환자안전, 소통과 협력, 의사와 윤리, 의사와 법, 의사와 사회, 전문직업성의 8개 영역으로 분류되고, 각 영역 당 2~7개의 수업성과가 포함되어 있다.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는 한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 과목과 국내 의대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를 비교하였다(Table 3).

사람과 질병 영역은 “의사가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성과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필수적이며, 사람의 생명, 발달, 노화, 죽음, 건강, 질병, 고통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¹⁴⁾고 기술되어 있으며 하위 수업성과로 4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한의과대학의 교과목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3번째 수업성과인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과목은 1개 대학의 ‘죽음학’외에는 관련 과목을 찾을 수 없었다.

성찰과 자기계발 영역은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의료 환경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¹⁴⁾고 기술하고 있으며, 하위 수업성과로 2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수업성과인 “다양한 직무 상황에서 의사의 직업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을 자각하고 유지하면서 자신을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한의과대학 교과목의 의철학, 동양철학(동양철학사), 자기탐색(자기이해), 과학인식과 역사 등의 과목에 해당할 수 있었으며, 거의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다”는 수업성과는 근거중심의학, 한의연구설계론, 한의학연구, 한의학심화연구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소수의 대학만 채택하고 있었다.

Table 2.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curriculum of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예1	예2	본1	본2	본3	본4
가천대 ¹⁶⁾	사회와 역사(생활과 법률) 한의학한문 글로벌문화(중국어) Academic English	의학사 의료윤리 의학통계 동양철학		예방의학 및 실습	임상심리학	법의학 보건법규
경희대 ¹⁷⁾	한문, 의학한문 빅데이터를 통한 세상 바로알기 한의학커뮤니케이션(선) **, 한의정보 학(선), 과학인식과 역사(선)	의학한문 의사학 한의학사유방법론(선) 중국어회화 의학통계학		법의학 의료윤리 의료경영의 이해(선) 의료법규 예방의학		
대구 한의대 ¹⁸⁾	사서강독, 자기이해와 진로설계 의학한문, 의학통계론, 의학영어 동양철학	의사학, 한의정보학, 의료윤리학	의학논문강독 기공학실습	예방의학		보건법규 예방의학 병원관리학
대전대 ¹⁹⁾	비전워크/비전탐색 일반한문 경전강독 발달심리학	어드벤처디자인 의학통계학 죽음학(예정) 의료윤리학 의학사 한의학한문	근거중심의학 팀프로젝트 인문한의학 성폭력, 언어폭력특강, 의철학(예정), 의학면 담학	한의학연구실계론 팀프로젝트		임상윤리학 및 상담심 리학(예정), 의료보험 및 병원관리학, 보건 의료법규, 의료봉사, 멘토링
동국대 ²⁰⁾		중국어 강독, 의고문 의학영어, 동양철학사 의학통계학	예방의학 (의사학)			법의학 보건법규 병원경영학
동신대 ²¹⁾	인성함양, 자기탐색, 자기이해, 의 사소통, 영어회화, 동양철학(이상 교양), 비교의학론, 일반한문, 의학 영어, 의학중국어	경전강독, 의사학, 의역학, 의학한문, 의료윤리	임상심리학	예방의학I, II 예방의학 및 실습	예방의학 III	예방의학 IV 보건법규
동의대 ²²⁾	경전강독 I II, 실용한자, 영어회화, 콜라보인성의 이해, 의철학 I II, 동양철학, 의학영어 I II,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중국어강독, 의료 와 윤리, 지도교수세미나 I II	기본영어, 의료와사회 의학한문 I II, 의역학 I II, 지도교수세미나 III IV	예방의학및양생학, 지도교수세미나 I II, 논어	예방의학 및 실습 I II, 지도교수세미나 III IV	의학통계	보건법규 I II, 캡스톤디자인 I II
부산대 ²³⁾	레퍼런스를 통한 음양오행론의 재발견(선) 한자문화와 전통의학(선) 현대의학의 역사(선)	동의수세보원의 애노회락 성정론(선) 한의학의료행위와 법률관계 (선)	현대사회와 한의학(I) -한의학정보학 -의료통계학 현대사회와 한의학(II) -연구윤리 -역학 -의료와사회	현대사회와 한의학(III) - 의료와 사회 - 보건의료관리 현대사회와 한의학(IV) - 환경산업의학 - 의료윤리 - 의사소통론	한의학심화연구 한의학연구	한의학연구 현대사회와 한의학(V) - 의사소통과 면담 - 지역사회의학 현대사회와 한의학(VI) - 보건의료법규 - 진료정보탐색
상지대 ²⁴⁾	의료윤리, 중국어, 의철학, 한문	의학통계		예방의학I	법의학 예방의학II	의료법규 인성교육과 진로탐색 병원경영학
세명대 ²⁵⁾	의료정보학 한문	한방의료윤리, 의역학 예방한의학, 의학한문 의학사, 의학통계		예방의학	보건법규	병원경영실습 임상실습캡스톤디자인
우석대 ²⁶⁾	사서강독, 의철학, 의료윤리, 의학 사, 의학한문, 중국어회화	중국어강독	예방의학 및 실습	의학통계		보건의료법규 의료관리, 예방의학 및 실습
원광대 ²⁷⁾	기초중국어, 의학중국어, 의학사	의철학	예방의학 의료리더십	의학윤리	의료경영학	의료법규

* : Subjects are classified by the authors through discussion, so they may differ from college guidelines.

** : optional courses

Table 3. Comparison of Human and Society oriented Learning Outcomes of Medical School with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Curriculum in at College of Korean Medicine

영역 ^사	수업성과	해당과목
사람과 질병	사람과 환자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죽음학
	환자와 의사의 이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의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체와 정신의 건강, 질병, 고통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성찰과 자기개발	다양한 직무상황에서 의사의 직업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을 자각하고 유지하면서 자신을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다	의철학, 동양철학(동양철학사), 자기탐색(자기이해), 과학인식과 역사, 의학의 역학 근거중심의학, 한의연구설계론, 한의학연구, 한의학심화연구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환자안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인적요인(human factor)을 관리할 수 있다 환자안전 사건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시스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진료팀의 구성원으로서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진료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건의 예방 및 대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환자안전	인환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환자-의사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리, 의료관리
	적절한 대화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합의(agreement)할 수 있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어려운 환자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 인환한 팀의료를 위하여 동료 의료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 진료 수행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소통과 협력	다양한 의료상황에서 주요 윤리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한의학기부니케이션, 의학면담학, 의사소통론 심리학, 상담심리학, 의사소통과 면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기밀유지의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다 의사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의한연구 관련 지침과 윤리적 원칙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의사의 다양한 직무를 윤리적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의사와 윤리	의사의 진료행위와 보건의료제도에 관련된 법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다 진료행위에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의 법률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보건의료 관련 법규에서 의사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파악 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 진료행위에 관련되는 의사의 의무를 파악할 수 있다	법의학, 의료법규(보건의료법규)
	시민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사의 사회적 지위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의료 이외 분야, 의사 이외 직종 및 단체와 협력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질병과 의료가 지닌 다층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다	
의사와 사회	의사의 직업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동료 의사나 다른 전문직과 함께 구성된 팀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전문직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실패나 역경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다 의료전문직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직 단체의 변화와 혁신 노력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의학적지식과 정보를 탐구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의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을 수행할 수 있다	인성과 리더십(인성세미나) 사회봉사, 의료봉사 의학통계학, 한의정보학(의료정보학), 근거중심의학, 한의연구실계론 대학생활과 자기혁신
	의사와 사회, 환경산업의학, 지역사회의학	

환자안전 영역은 “환자안전은 환자 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안전을 주시하는 태도와 환자안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익혀 환자안전을 향상시켜야 한다”¹⁴⁾는 필요성으로 6가지 수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영역은 모두 보건의료관리, 의료관리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한의대 교과목으로는 소수의 대학에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소통과 협력 영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은 환자-의사 관계에서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팀의료에 중요하다. 의사는 환자와 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환자, 보호자, 동료 의료인 및 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¹⁴⁾고 그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고, 7가지 수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영역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수업성과는 한의커뮤니케이션, 의학면담학, 의사소통론, 심리학, 상담심리학, 의사소통과 면담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5개 대학이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수업성과인 “원활한 팀의료를 위하여 동료 의료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임상실습캡스톤디자인 과목이 해당될 수 있으며, 3개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수업성과인 “진료 수행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찾기 어려웠다.

의사와 윤리 영역은 “의료윤리는 의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의사는 모든 직무는 윤리적 요인을 담고 있다. 의사는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얻고 전문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¹⁴⁾는 필요성으로 5가지 수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영역의 모든 수업성과는 의료윤리(한방의료윤리, 임상윤리), 인성함양, 콜라보인성의 이해, 성폭력, 언어폭력특강, 연구윤리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의사와 법 영역은 “의사는 진료행위에 요구되는 법적 지식을 갖추어 적절한 진료를 수행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행정적 의무 및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인지하여 의료업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환자와의 분쟁, 법적 제재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고 문제발생 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¹⁴⁾는 필요성으로 4가지 수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영역의 모든 수업성과는 법의학, 의료법규(보건의료법규)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의사와 사회 영역은 “의사는 자신을 둘러싼 직접적인 의료 환경뿐 아니라, 시민사회, 국가, 시장, 자연 및 생태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통시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현상으로서 의(醫)를 공시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¹⁴⁾는 필요성으로 3가지 수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영역은 의료와 사회, 환경산업의학, 지역사회의학과목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수업과목의 내용과 맥락에 일치하는 교과목은 찾기 어려웠다.

전문직업성 영역은 “전문직 구성원이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준수할 때에만 사회는 전문직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로서 전문직업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¹⁴⁾는 필요성으로 7가지 수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수업성과인 “의사의 직업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인성과 리더쉽(인성세미나)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소수의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네 번째 수업성과인 “전문가로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다”는 사회봉사, 의료봉사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2개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여섯 번째 수업성과인 “새로운 의학지식과 정보를 탐구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한의정보학(의료정보학), 근거중심의학, 한의연구설계론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2개 대학이었다.

마지막 수업성과인 “의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을 수행할 수 있다”는 대학생활과 자기혁신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1개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었다. 나머지 3개 수업성과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찾기 어려웠다.

4. 한의사 직무 및 역량과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학) 교육과정 비교

2017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한의사 직무 및 역량¹⁵⁾을 한의과대학 인문사회학 교육과정과

Table 4. Comparison of jobs and competencies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curriculum

한의사 직무 및 역량(2017)		해당 과목
최선의 진료	병력청취 및 신체검사	
	전문지식 및 임상술기	
	통합적 치료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한의사와 환자간 의사소통	한의커뮤니케이션, 의학면담학, 의사소통론, 심리학(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의사소통과 면담
	한의사간 의사소통	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임상실습캡스톤디자인
	보건 의료 직군 간 의사소통	
전문직업성 함양	직업정체성 확립	의철학, 동양철학(동양철학사), 자기탐색(자기이해), 의역학, 한의학사유방법론, 인성과 리더십(인성세미나, 인성함양), 대학생들과 자기혁신(레퍼런스를 통한 음양오행론의 재발견(선), 한자문화와 전통의학(선)), 비교의학론
	윤리의식 제고	의료윤리(한방의료윤리, 임상윤리), 인성함양, 콜라보인성의 이해, 성폭력, 언어폭력특강,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 활동	근거중심의학, 한의연구설계론, 한의학연구, 한의학심화연구
사회적 책무수행	지역사회 및 국내 공공보건활동	의료봉사(사회봉사), 의료와 사회 지역사회의학, 환경산업의학
	국제협력 활동	예방의학
	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참여	예방의학
효율적인 의료경영 및 관리	환자 관리	병원경영(의료경영학, 병원경영실습)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의료보험 및 병원관리학
	재무 및 인력 관리	

비교하였다(Table 4).

한의사 진료를 위한 기초 한의학·의학 / 임상 한의학·의학 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한의사 직무 및 역량은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수행”, “효율적인 의료 경영 및 관리”로 크게 네가지 역량이 있으며, 각 역량 영역별로 각각 세가지의 세부 역량이 있었다.

주요 역량의 세부 역량별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과목을 분류하면,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에서, “한의사와 환자간 의사소통”은 한의커뮤니케이션, 의학면담학, 의사소통론, 심리학(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의사소통과 면담 과목이 해당되며, 5개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한의사간 의사소통”은 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임상실습캡스톤디자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3개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 의료 직군 간 의사소통”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전문직업성 함양”에서, “직업정체성 확립”은 의철학, 동양철학(동양철학사), 자기탐색(자기이해), 의역학, 한의학사유방법론, 인성과 리더십(인성세미나, 인성함양),

대학생활과 자기혁신(레퍼런스를 통한 음양오행론의 재발견(선), 한자문화와 전통의학(선)), 비교의학론의 과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8개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윤리의식 제고”는 의료윤리(한방의료윤리, 임상윤리), 인성함양, 콜라보인성의 이해, 성폭력, 언어폭력특강, 연구윤리 과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10개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과 연구 활동”은 근거중심의학, 한의연구설계론, 한의학연구, 한의학심화연구 과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2개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적 책무수행”에서, “지역사회 및 국내 공공보건활동”은 의료봉사(사회봉사), 의료와 사회, 지역사회의학, 환경산업의학 과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4개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협력 활동”과 “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참여”는 예방의학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예방의학은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효율적인 의료경영 및 관리”에서, “환자 관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재무 및 인력 관리”는 모두

병원경영(의료경영학, 병원경영실습), 의료보험 및 병원관리학 과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9개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IV. 고찰

1.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의 교과목 및 교육내용

한의학교육에서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의 정의, 범주, 교과목,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천 등¹⁰⁾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의학의 용어나 교과목이 다소 혼란스럽고, 한의학 전공이나 교양의 성격이 강한 교과목을 인문사회의학 교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의학 교육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에서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안 등⁶⁾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의료윤리, 환경, 지역의학 등의 내용은 기존의 예방의학 전공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학교의 운영 방침이나 교과 담당 구성원의 배경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전 등⁵⁾도 비생물학적 내용의 의학교육이 곧 인문사회의학 교육이라는 단순한 인식을 지적하면서, 그 예로 지역사회의학, 예방의학, 행동과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였다는 것만으로 인문사회 의학을 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고 하고, 예방의학, 정신과학 분야는 인문사회의학에서 제외하는 시각을 가졌다. 물론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예방의학에서 다루는 윤리, 사회, 건강증진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의학 교과목에서 다루는 역학, 통계, 직업의학 등의 분야는 현실적으로 임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므로 예방의학 전체를 인문사회의학의 범주로 넣을 수도 없다.

WFME가 행동과학, 사회과학, 의료윤리, 의료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의사가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사는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제보건, 공중보건, 인구학 등을 비롯하여 의료전달체계, 법학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질병으로부터 소외되는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철학, 예술, 어문학 등의 인문학적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WFME, ASK2019, KAS2021의 인문사회의학 분야에서 교육해야 하는 교과목 들을 살펴본다면 교과목명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 KAS2021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 역시 의대교육이나 WFME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Table 1). 다만, 이 교과목에서 원래의 취지를 살려 한의과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도출해 내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며, 그 내용에 따라 인문사회의학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의 각 대학 학년별 교육과정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검토해보면, 초기 예과과정에서 주로 자기성찰과 자기개발, 윤리, 사회학, 전문직업성 등에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본과 학년에서는 예방의학, 보건법규, 병원경영학 등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의사의 전문 진료를 위한 과목을 본과 위주로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성, 성찰, 윤리, 직업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의대 교육과정¹⁴⁾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본과 3,4학년이 되면 임상 의학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임상이론과 실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졸업 후 환자진료나 타 의료인과의 소통을 고려한다면 환자-의사간 의사소통, 상담과 같은 교과목과 보건의료인과의 소통과 협력 관련 과목은 고학년에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의대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와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비교

기초의학교육에 관한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로 국내 의대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¹⁴⁾를 중심으로 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국외에서 아직 명문화된 인문사회의학관련 학습성과와 출판된 내용은 없지만, 국내에서는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의사상에 대해 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

면 캐나다 CanMED²⁸⁾와 영국의 미래의사²⁹⁾(Tomorrow's doctor)에서 역량 또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고, CanMED는 의료전문가(medical expert), 의사소통가(communicator), 협력자(collaborator), 관리자(leader), 건강 수호자(health advocate), 학자(professional), 전문가(professional)의 6가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의사상은 2009년 미래의사(Tomorrow's doctor)에서 2018년 졸업 역량(outcomes for graduates)¹⁷⁾으로 개정되었고, 이 문서에서는 전문가적 가치와 행동(professional values and behaviours), 전문가적 술기(professional skills), 전문가적 지식(professional knowledge)의 3가지 큰 역량을 제시하고 그 하부로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역량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의사의 기초의학, 임상 의학을 제외한 의사의 역량을 종합 정리하면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의 내용에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¹⁴⁾는 사람과 질병, 성찰과 자기개발, 환자안전, 소통과 협력, 의사와 윤리, 의사와 법, 의사와 사회, 전문직업성의 8개 영역으로 분류되고, 각 영역 당 2~7개의 수업성과가 있다.

기초 및 임상 의학 과목을 제외하고 의사가 갖추어야 할 학습목표로 제시된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는 한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 과목과 국내의대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과목을 고찰해 보면, 사람과 질병 영역, 전문직업성의 몇 개 수업성과를 제외하고 골고루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별로 적용했을 때 4개 대학 정도가 대표적인 수업성과에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대학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다.

의사와 법 영역과 의사와 윤리 영역은 많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고시에 의료법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대학교 전체에서 인성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성찰과 자기개발 영역의 직업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는 한의학적인 정체성으로 간주하였고, 많은 대학에서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합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의 수업성과는 전문직업성 영역의 “새로운 의학지식과 정보를 탐구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의 수업성과와 함께 적용하면 자기주도학습 및 근거 중심교육을 의미

한다. 이 수업성과를 과목명으로 지정한 대학은 적었지만, 정규과목이나 다양한 과목에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과목명 자체는 적지만, 많은 대학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사람과 질병 영역, 환자 안전 영역, 소통과 협력 영역, 의사와 사회 영역, 전문직업성의 대부분의 수업성과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명으로 교육하는 대학은 많지 않았다. 의학교육의 수업성과를 모두 한의사의 역량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참고할 만한 수업성과는 충분히 많다고 판단된다. 향후 한의학 교육에서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와 비슷한 역량이 개발되길 바란다.

4. 한의사 직무 및 역량과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비교

한의학 교육에서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학습성과에 대한 문서는 각 대학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한의사 직무 및 역량을 한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과 비교하였다. 한의사 직무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한의대 교육과정 과목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여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의 한의사간 의사소통, 보건 의료 직군 간 의사소통 역량은 단일 수업과목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역량이며, 의사소통 과목에 포함시켜 적용가능하다. 5개 대학만 의사소통 관련 과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역량은 향후 각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책무수행 영역에서는 의료봉사(사회봉사), 의료와 사회로 2개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부 역량은 지역사회의학, 환경산업의학, 예방의학 과목에 포함될 수 있는 역량이다. 특히 의료봉사(사회봉사)는 현재 대학 동아리별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 과목이나 졸업기본요건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효율적인 의료경영 및 관리 영역은 의학계열의 기본 의학학습목표에 포함되지 않고 한의사 직무 역량에만 포함되어 있다. 이 역량은 환자의 관리외에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와 재무관리도 포함하는데, 한의사의 진료환경의 영향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경영(의료경영학, 병원경영실습), 의료보험 및 병원관리학의 과목으로 세부 직무역량을 과목 내용에 포함시켜 적

용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제한점으로는 각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학교 홈페이지와 편람을 참고하여 조사 정리하였으나, 강의계획서는 조사하지 못했다. 교과목명만으로 실제 교육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습목표와 영역별 내용을 분류할 때 누락되거나 오분류될 가능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저자 2명(HMP, SHS)이 미리 정한 서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류하였고,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는 토론을 통해 수정하여 최종 합의하였으며, 제한된 정보내에서 강의 과목의 주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관련 유사 과목 교수들의 자문을 통해 과목 분류에 최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견해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 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원전 교과목을 의료인문학(인문사회학)으로 분류하는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다. 원전은 한의학이론의 대표과목으로 한의학기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원전에서 학습하는 내용에 일부 철학적인 내용이 있고, 한의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윤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인문사회학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상이하였다. 하지만, 세부 교육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한의학의 전문적인 기본이론을 다루는 것이므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전 교과목은 의료인문학(인문사회학)에서 제외하였다. 이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한의학 교육에서 참고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최근 의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료인문학의 주요 내용이 인성회복과 직업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미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고 교육해 왔다는 점이다. 이를 현재 상황에 대입하여 보면 세계의학교육의 추세에서 의료인문학이 강조되니까 한의학교육에서도 강조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한의학교육에서 무엇을 교육해 왔느냐를 살펴보고 이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과목이 인문사회학의 범주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의대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⁴⁾의 직업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과 한의사 직무 및 역량⁵⁾의 직업 정체성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달랐다. 한의사의 직업 정체성을 의사 직업 정체성과 동일시 할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의 학문적 정체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대 학습목표의 의사의 직업 정체성은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파악하고, 사회가 요구

하는 의사의 모습이나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의사상, 의사의 사회적 역할,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 자율규제와 자기관리, 전문직의 정직성과 진실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한의사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분류되는 내용이 의철학이나 동양철학과 같은 다소 철학적인 성격을 띤 과목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의대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의사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과목까지 폭넓게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의사의 정체성에 대한 저자 의견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향후 한의사 정체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V. 결론

인문사회학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WFME, ASK2019, KAS2021의 기준으로 고찰하고,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의대교육과 한의사 직무역량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WFME, ASK2019, KAS2021에서 교육하도록 하고 있는 인문사회학 관련과목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한의대 교육과정의 교과목에도 충분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었다.
2. 한의학 교육기관의 인문사회학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언어, 사회학, 인성교육, 윤리, 철학 등이 주로 예과과정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예방의학, 보건법규 등의 과목은 본과과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3. 의대 교육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와 한의대 인문사회학 교육과정을 비교하였을 때 한의학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사람과 질병' 영역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 '환자안전'영역에서 환자안전 사건의 예방 및 대처, '소통과 협력'영역에서 관련기관과 단체와 효과적인 소통, '전문직업성'영역에서 사회적 책무와 성찰적 실천 등의 내용이었다.
4. 한의사의 직무역량에서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은 '보건의료 직군 간의 의사소통'으로 파악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9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Kwon SO. Conception of Medical Humanities and it's Role in Med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05;17(3): 217-223
2. Meng KH. Teaching Medical Humanities in Korean Medical Schools : Tasks and Prospect.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07;19(1):5-11
3.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Evaluation, the 2nd cycle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on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2016(2018 update) [cited 2021.07.25.: Available from: https://ikmee.or.kr/board5/bbs/board.php?bo_table=02_06&wr_id=6]
4.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2021: KAS2021, Korea, [cited 2021.07.25.: Available from: http://ikmee.or.kr/board5/bbs/board.php?bo_table=02_06&wr_id=7]
5. Jeon WT., Yang, EB.. Medical Humanities and the Future of Medical Educ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Publishing Office. 2003. p.123
6. An JH, Kwon I, Lee SN, Han JJ, Jeong JE. Study on the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urriculum in Korean Medical School: Current Teaching Status and Learning Subjec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08;20(2):133-144
7. Koo MS.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grative Curriculum of Liberal Social Medicine in Major Medical School.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2010;4(1):115-148.
8. Jeon WT.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0;12(1):23-31
9. Lee HJ, Hong JW, Hong SP, Lim YK, Kim DK, Jung JG, Lee SY, Kwon YK. Attitudinal Study of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toward the Educational Necessity of Human Social Medical Study in the Curriculum of Korean Oriental Medicine.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0;24(6):1134-1141
10. Cheon ME, Lim BM, Shin SW. Education of Medical and Social Medicine in School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2;16(1):31-42
11.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The updated second edition of the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Basic Medical Education [<http://wfme.org/standards/bme>]
12.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New edition of WFME Standards for Basic Medical Education. WFME. [cited in 2021.07.25. Available from: <https://wfme.org/wp-content/uploads/2020/12/WFME-BME-Standards-2020-1.pdf>]
13.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 (ASK2019). 2018. [<http://kimee.or.kr/medical-education/criteria/>]
14.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 and Graduate Medical School. Learning outcomes of basic medical education: Human and society-centered. Gabwoonmunhwasa, Paju, 2017. pp 22-43
15.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Job and competency for Korean Medicine Doctors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www.ikmee.or.kr/html_2016/03/03.php]
16.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www.gachon.ac.kr/prekoreanmedicine>]

- /5563/subview.do]
17.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kmc.khu.ac.kr/html_2016/02/01_02.php]
 18. Daegu Haany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www.dhu.ac.kr/HOME/kmc/sub.htm?nav_code=kmc1579002322]
 19. Daejeon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www.dju.ac.kr/medicine/cc/clcm/clcmMain.do?mi=2785>]
 20.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web.dongguk.ac.kr/user/introduction_dgu/info/college/goals.jsp?deptCd=DK020901&id=kr_030109010200]
 21. Dongshin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dshani.dsu.ac.kr/dshani/index.php?pCode=course>]
 22.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www.deu.ac.kr/www/dept/report/41/3>]
 23.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kmed.pusan.ac.kr/kmed/13862/subview.do>]
 24. Sangj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www.sangji.ac.kr/hani/sub02_01_01.do]
 25. Semyung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mhani.semyung.ac.kr/prog/curriculum/smhani/sub03_01/C31/view.do]
 26. Woosuk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hani.woosuk.ac.kr/2015/inner.php?sMenu=A4100>]
 27. Wonkwang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curriculum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kmed.wku.ac.kr/?page_id=507]
 28.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CanMED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www.royalcollege.ca/rcsite/canmeds/canmeds-framework-e>]
 29. General Medical Council. Outcomes for graduates 2018. [cited in 2021.07.01. Available from : <https://www.gmc-uk.org/education/standards-guidance-and-curricula/standards-and-outcomes/outcomes-for-graduates>]